광남일보

금호타이어, 지역청년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조선이공대 잡콘서트·채용설명회 참여 7

장성, 스포츠 강군 우뚝 '역대 최고 성적'
김한종 군수 "군민·공직자 동참 성공 요인" 8

'땅끝 해남'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순항
보성~임성간 철도 9월 개통…KTX 유치 총력 10

전남새마을회, 지역발전 실현 앞장
제창 55주년 기념식…새마을정신 정립 13

조간 제7833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음력 4월 2일)

SKT 유심 교체 첫날부터 '오픈런' 현실화

"남은 유심이 없습니다"…이용자 불편

지역 대리점 오전부터 장사진
재고 부족에 혼란·불편 속출
부산 피해 발생…불안감 커져

"죄송합니다. 남아있는 유심이 없습니다. 언제 입고될 지도 모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심(USIM)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대리점에서도 재고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이 속출했다.

28일 오전 8시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T월드 대리점.

대리점 영업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은 유심 불법 복제로 개인정보 유출, 대포폰 개통 등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찾은 것이다.

고객들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번호표까지 발급하며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몰려드는 시민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심 교체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들은 가입 확인 등 사전 절차를 비롯해 유심 교체와 관련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일부 직원들은 방문 고객을 응대하면서도 빗발치는 전화 상담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부모님과 함께 대리점을 찾은 대학생 A씨는 "유심 재고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대리점을 찾았다. 다행히 일찍 줄을 서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었다"고 안도했다.

해당 대리점에서 보유 중이던 유심 200여개는 3시간도 되지 않아 동이 났다.

광주 동구 충장동, 북구 유동 등에 위치한 대리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났다. 또 대리점에 항의하는 고객들로 잡음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40대 직장인 B씨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얼굴도장만 찍고 바로 대리점으로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 놀랐다"며 "1시간을 기다렸는데 헛걸음이 됐다. 내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니 걱정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면에 계속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광주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호남권 메가시티' 공약…대선서 '순풍'

이재명 후보, AI·재생에너지·농생명산업 공약 제시
고속도로·철도 등 SOC 확충…경제동맹 현실화 절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메가시티 구상이 6·3 대선 정국을 기회로 추진동력을 확보할 지 주목된다.

지역 소멸 위기감 속 필연적 해법으로 경제동맹을 통한 메가시티 구상을 논의해 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거치며 메가시티가 지역균형발전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때문이다.

여기에 광역 공약 발표회를 통해 철도·고속도로망 구축과 국립 의대 설립,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 구체적 과제까지 공개되며 호남권 메가시티 실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민주당 경선 기간 동안 호남권 메가시티를 겨냥한 대선 공약이 잇따라 발표됐다.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AI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호남권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광주·전남·전북 3개 광역자치단체는 과거 경제통합, 광역경제권, 행정통합 등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현실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경제동맹 체결로 방향을 전환했고, 올해는 이를 강화하는 협약까지 맺었다.

여기에다 대선 공약으로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이 본격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순풍에 돛을 달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과 SOC 확보 약속은 메가시티 조성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AI·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성해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기자협회와 전북기자협회가 대혁신호남포럼과 공동으로 마련한 호남 공약 발표회에서도 호남광역공약, 즉 메가시티에 힘을 실었다.

공개된 광역공약에는 서남권 광역철도와 고속도로망 구축이 포함됐다. 군산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110㎞, 국비 4조 7919억원) 구축 사업이 핵심으로, 완공 시 기존 190분 소요시간이 92분으로 단축된다. 광주연구개발특구송정역빛그린산단~영광을 연결하는 광주 신산업선(44.7㎞, 1조9000억원) 건설, 달빛철도(198.8㎞, 7조원) 구축, 전라선 고속화 사업(180.4㎞, 1조9326억원)도 포함됐다.

호남 내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사업도 추진된다.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연결하는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는 총 연장 210.7㎞ 규모로, 2035년까지 10조 4383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교통 인프라는 서남해 관광벨트 구축과 향후 유라시아 대륙과의 철도 연결 기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원 공약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배구, 핸드볼 등 경기장 신축과 기존 경기장 보수, 임시 경기장 설치 등에 822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도 관계자는 "각 후보가 AI와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SOC 확충을 기반한 호남권 메가시티 공약을 잇달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며 "다만 아직은 총론 수준인 공약인 만큼, 대선 본선 과정에서 각 당 후보 측과 접촉해 공약을 구체화하려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혁신호남포럼 관계자는 "이번 호남 공약 발표회는 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의 미래 발전 방안을 다음 민주정부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호남이 이번 호남공약발표회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전략을 꾸준히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명, 첫날부터 공격적 중도 확장 행보

상임선대위장에 윤여준 영입…'국민 대통합·경제' 콘셉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선거 본선 후보로서 활동을 개시한 첫날인 28일 중도 표심을 겨냥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3면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영입에 나서는 등 외연 확장을 꾀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본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은 물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특히 예정에 없었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참배했다.

그동안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진보진영 전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하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이런 행보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진영에 상관 없이 지지를 받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새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오후에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AI(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등 이 후보가 내건 실용주의 경제 기조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30일께 선대위를 꾸릴 예정이다.

윤 전 장관 이외에도 외연 확장 차원에서 복수의 외부 인사 추가 영입도 함께 검토 중이며 선대위 출범 후 순차적으로 인선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